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16 ~ 7/22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6	달은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2	성철 스님의 화두공부 하는 법	성철	해인사출판부	7	명상선물	현빈	이층버스
3	깨달음	법륜	정도	8	법구경(영문, 한문, 백일리아어 수록)	전재성	한국문화연구원
4	붓다순례	자연	불광출판사	9	미타행자의 편지	본연	담앤북스
5	나를 찾아가는 명상 여행	정여	맑은소리출판사	10	임종,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인광,홍일	운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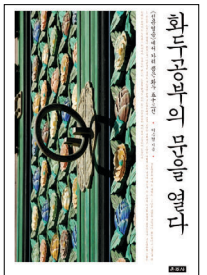


<선문염송> 53개 공안으로 시작하는 화두공부

화두공부의 문을 열다

-<선문염송>에서 가려 뽑은 화두 53선-

이수경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5천원



화두는 불교의 수행법 가운데 하나인 참선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공부방법이다. 언어 이전의 자리, 우리의 마음자리 내지 본래면목을 말한다. 이 화두를 보는 것을 간화선, 화두공부라고 한다. 책은 새로운 접근으로 화두의 본질과 공부를 지어 나가는 방법을 제시한다.

한국불교는 고려 때부터 간화선을 주요 수행법으로 받아들여 지금까지 수행의 주요 전통으로 삼고 있으며, 간화선을 최상승의 수행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책이 있다. 고려 진각혜심선사가 지은 <선문염송(禪門拈頌)>이다. <선문염송>은 대표적인 공안집으로 혜심 스님이 각운 스님에게 전할 때 총 1125칙이었고, 그 뒤 437칙이 추가되어 현재는 1463칙이 전한다. <화두공부의 문을 열다>는 40여 년간 간화선 수행을 해온 저자가 <선문염송>에서 53가지의 이야기기를 가려 뽑아, 기존의 화두공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화두의 참된 의미와 화두공부의 올바른 방법을 자신의 체험과 직관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이것으로도 화두공부 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기존 화두공부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가? 이에 대해 저자는 크게 다음 두 가지를 들고 있다. 먼저 많은 수행자가 자신의 근거와는 상관없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화두들, 예컨대 '무자' 나 '뜰 앞의 잣나무', '마삼근' 등의 화두를 틀에 박힌 듯이 무자정 참구하다가 스스로 지쳐 아무런 소득도 없이 끝낸다는 것이다.

둘째는 선가에서는 화두를 들 때 의단, 즉 크게 의심을 내서 끝내는 그 화두를 타파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문제의 소지가 많다. 왜냐하면 화두타파라는 용어 자체는 화두를 쳐서 깨뜨린다는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발상이 수많은 학인들을 잘못 이끌어 화두 미해결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화두타파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화두, 즉 공안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빚어진 엄청난 오해의 소산이며,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화두공부를 해야 할까. 책은 먼저 화두를 의심하는 대의단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의단이란 해결책이 전무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화두가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인간정신의 밀봉 현상이다. 인간정신의 탈출구가 사라지면 그 정신세계 전체를 가리켜 대의단이라 호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의단은 바로 인간 내면에 도사린 잠재의식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화두는 의지적으로 붙잡거나 깨야 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밀봉' 현상, 즉 잠재의식에 대한 자각을 촉구하는 정신 작업인 것이다. 이렇게 문제해결도 안 되고 의지할 것도 없는 존재 자체의 밀봉 상태에서 공부를 지어 나가는 것이 화두공부의 요령인 것이다. 따라서 화두는 타파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세워야 하는 것이다. 화두는 성립시킬 때에야 비로소 완전하게 해결되어 화두 자체가 떨어져 나간다

"각자 근거에 맞는 화두 택해야"

화두는 잠재의식 자각하는 정신 작업

타파가 아니라 완전히 놓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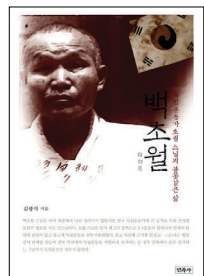
는 것이다. 그렇다면 화두를 세운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인가? 화두를 그야말로 타파, 즉 쳐서 깨뜨리겠다는, 무너뜨리고야 말겠다는 꿈은 그런 의욕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실현되는 법은 없다. 세상 모든 것이 환화와 같으며 화두 역시 환화와 같다. 그러니 환화와 같은 화두는 처음부터 타파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이다. 지극한 이치, 즉 지리(至理)에서 바라보면 무너뜨릴 것도 없고, 무너뜨린다고 무너지는 것도 없다. 그러므로 완전히 놓아버려야 된다고 말한다. 완전히 놓아버리는 까닭에 '다 이루는 것'이며, 완전히 놓아버리는 까닭에 비로소 수수께끼 같은 공안에서 풀려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진짜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시작된다고 말한다.

불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화두공부를 통해 자신의 본래면목을 찾았으니, 화두공부는 분명 부처님의 근본정신에 부합되는 탁월한 수행법임은 분명하다. 책은 화두에 관심이 있거나, 그 동안 화두공부를 지속해왔지만 뚜렷한 소득을 얻지 못한 이들이 화두공부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백초월

김광석 지음 | 민족사 펴냄 | 1만5천원



2009년 서울 진관사에서 백초월(1876~1944) 스님의 것으로 추정되는 태극기와 '독립신문', '자유신보', '신대한신문' 등 독립운동 자료가 발견됐다. 백초월 스님은 대중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백용성 스님, 한용운 스님과 함께 한국 독립운동사에 큰 공적을 세운 스님이다. 책은 일제강점기에서 임시정부와 독립군을 위해 군자금을 모금하고 항일 비밀 결사 일심교(一心敎)를 조직하는 등 기지와 열정으로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벌인 백초월 스님의 일대기다.

20대 후반에 강박을 지낸 초월 스님은 3.1운동이 일어나자 일제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불교계 독립운동을 진두지휘했다. 3.1운동으로 백용성 스님과 한용운 스님 등 불교계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자 백초월 스님은 1919년 경성중앙학림 내에 한국민단본부라는 비밀 단체를 조직하고 항일 운동을 전개했다. 전국 불교도 독립운동본부 격인 이 단체를 이끌면서

백초월 스님, 그도 독립운동가였다

그는 지하 신문인 '혁신공보'를 제작해 배포하고 민단본부의 부원을 통해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제에 저항했다. 항일 승려들을 임시정부 및 독립 부대에 보내기도 했다. 군자금 모집과 1920년 일본의회 독립청원 활동을 이유로 일제에 체포된 백초월 스님은 모진 고문을 당했으나 상한 몸으로 포교당에서 일심 사상을 강연했다. 저자는 이때 백초월 스님이 이 사상을 독립운동의 이론으로 활용하기로 결심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외면적인 포교활동을 통해 자신의 항일 이념 및 독립운동을 실천했던 것이다. 이처럼 백초월 스님은 고문으로 몸이 부서지고 일제의 감시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기지를 발휘해 독립운동을 도모했다. 저자는 "백초월 스님의 일심교 및 일심회라는 항일 비밀 결사체는 일제하에 불교계 독립운동사에서 유일한 것이며, 나아가 국내 독립운동사에서도 특별하고 희귀한 사례인 것이 분명하다"며 백초월 스님의 흔과 기백을 찾아 역사 속에서 그를 복권하고자 말한다. 또한 그는 수집한 증언과 증거들을 토대로 백초월 스님의 항일 활동이 한 개인이 아닌 전국적인 조직망을 통해 전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조명해야 한다고 학계에 호소하고 있다.

스님은 고문으로 옥사하는 그날까지 하회중생의 보살도를 걸었던 선지식이었다. 1939년, 백초월 스님은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균용 열차에 '대

한독립만세'라고 낙서하는 사건을 주도하여 다시 일본 군대에 체포됐다. 이후 그는 옥살이를 하다가 1944년 6월 29일, 해방을 1년 앞두고 청주 교도소에서 끝내 순국했다. 저자는 백초월 스님이 일제에 맞서 그토록 열정적으로 싸웠던 근원을 그의 불교사상에서 찾고 있다.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중생구제, 즉 하회중생의 차원에서 일제의 국권 강탈 및 민중 탄압에 맞서 싸웠다는 것이다. 중생 구제를 위해서는 지엽적인 계층에 얽매지 말아야 하며, 불교와 승려가 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던 초월의 사상은 오늘날 불교의 현실에도 적잖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저자는 "일제하 독립운동사에서 옥중 순국한 독립운동가로 단재 신재호, 독립군 지도자 김동삼, 그리고 백초월 스님 3인을 손꼽는다"고 하면서 그중 유독 백초월 스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점을 아쉽다고 했다. 책의 출간으로 백초월 스님을 비롯해 세월 속에 망각되어 가는 순국선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그들의 위대한 행적이 낱말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책에는 조영암 스님의 '구국당 백초월 대선사 옥사 순국록', 고은의 추모시 '백초월 스님' 등 부록과 백초월 스님의 일대기를 요약한 연보를 함께 실었다. 목족도 등 그가 남긴 유물 사진을 제공해 볼 수 있는 예술가·서예가로서의 백초월 스님도 만나볼 수 있다. 박재원 기자

유식(唯識)으로 읽는 <반야심경>

법상유식학으로 풀이한 반야심경

송천우 편역 | 비움과소통 펴냄 | 1만4천8백원



<반야심경>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교설 가운데 마음의 이치를 밝히는 절경이자 반야사상의 핵심을 담은 경전이다. 책은 유식(唯識)을 바탕으로 반야심경과 불교교리를 통설한 것이다. 저자에 의하면 대승불교사상을 교리적으로 체계 있게 이해하고 접근하려면 반드시 법상유식학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유식학이 난해하여 학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독자들은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이다. 저자는 유식학을 밀바탕으로 하는 불교교리에 대한 책자를 서술하고자 고심해오던 중 개론적 성격의 설명을 <반야심경>을 통해 독자들에게 제시해 보는 것이 좋

겠다는 생각이 들어 쪼뼛만 다양한 설명을 담은 저술을 펴내기로 결심했다. 통별(通別)의 측면에 입각하여 1부에서 우선 불교의 근본교의부터 통론적으로 저술하고, 2부에서 경문의 순서에 따라 짧은 해설을 가미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러한 구성 체계 아래 유식학 관련 자료인 <성유식론>, <대승아비달마잡집론>, <십유식론> 등 많은 여타의 전적에서 담고 있는 요의(要義)를 염두에 두어 유식사상이 근본교의와 맞물려 돌아가게 구성함으로써 독자들이 <반야심경>뿐만 아니라 유식학의 근본까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했다. <반야심경>에 담긴 사상과 자리매김이 이처럼 중대한 까닭에 예로부터 이 경전에 주소(注疏)를 가하여 연구하고 해석한 저서들이 시대별로 수없이 출현하여 유통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불자들 중 거의 대부분이 <반야심경>을 불독하고 있다. 저자는 "그러나 난해한 본 경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석서들은 너무나 전문적이다. 설명을 지나치게 생략하거나 앞뒤 없이 비약적인 추리로 성급히 결론을 끌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불

자들이 이 해석서를 이해하기가 <반야심경> 본문을 이해하는 것 못지않게 어렵다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이다."고 했다. 이러한 현실이 <반야심경>의 대의가 세상에 환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며, 불교의 근본 핵심 사상인 반야바라밀다가 완전한 모습으로 생활화되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불자들이 난해한 <반야심경>을 이해하는 데 대해일적(大海日暎) 만큼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출간의 취지이다.

<반야심경>의 강령대에는 짧고 간결하며 분명하다. 그러나 그 짧은 문장은 부처님 49년 광장설법인 일대시교 가운데 21년 동안 설한 광대하고 심오한 6백부 <대반야경>의 핵심요지를 빠짐없이 원만구족하게 간직하고 있는 골수이다.

책에서는 불교의 근본교의인 세간·출세간의 모든 인과차별상과 성(性)·상(相)이 둘이 아닌 중도실상진공(中道實相眞空)으로서의 열반을 더붙여 비추고 있다. 이를 근본자체로 의지해서 일으키는 3관수행론과 현실반야와 밀담반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상과 교리체계를 낱말이 함축하고 있다. 실로 이는 교리적으로나 사상에 있어서도 위대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박재원 기자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들에게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사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1리 58번지



마음과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구도(求道)소설

자유인 해월의 구도(求道)와 깨달음 이야기

소설 **군야** 석암 지음 | 150*210 | 248쪽 | 1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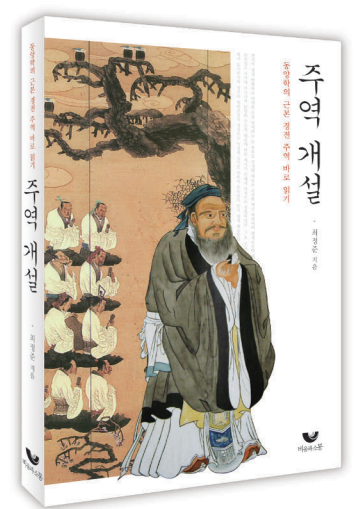
<소설 군야>는 픽션과 논픽션으로 구성되었다. 한 수행자가 깨달음의 마지막 한 고개를 넘기 위해 지구에 내려와 고난과 고통을 받아들이며 수행해나가고, 마침내 자성관음(自性觀音)을 발현하여 깨달음을 이루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대원력을 가진 수행자상을 그려나간 것이다. 저자는 석암스님(양구 관음선원장).

대인(大人)은 천지와 더불어 그 덕(德)을 함습하며 일월(日月)과 더불어 그 밝음을 함습한다

동양학의 근본 경전 주역 바로 읽기

주역 **개설** 최정준 지음 | 신국판 | 232쪽 | 12,800원

한국 주역학의 대가인 대산(大山) 김석진(金碩鎭) 선생의 제자인 철산(哲山) 최정준 박사(성균관대 유학동양학부 겸임교수)는 기업인·공무원 주역교육의 최고 인기강사다. 주역의 형성과 구성체계, 팔괘(八卦)의 성립과 이해, 주역을 읽는 방법, 세계변화의 원리와 점(占), 주역과 천문역명의 관계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5@daum.net